

초기 광주항쟁 소설 「깃발」 연구 - 초점화 양상을 중심으로 -

채 희 윤*

요 약

본고는 '5월 문학'에 대한 언급 때마다 항상 앞에 놓이는 홍희담의 「깃발」의 연구이다. 이 작품은 그 문학적 평가에 있어서, 텍스트의 예술적 형상화와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반되고 있다. 「깃발」의 이러한 대립된 관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텍스트의 서사 기법 분석을 통해서, 이 소설의 목적과 지향성을 점검하고 그 소설적 성취를 살펴보았다.

「깃발」은 중요 기법은 초점화 양상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소설 내부의 인물들에게 초점을 내부초점- 맞추고, 서술자의 시선이 주·부인들 모두에게로 옮겨가는-가변 초점- 기법을 활용한 복수서술자들의 교차서술이 그것이다. 「깃발」에 있어서, 홍희담은 그의 인물들 모두가 '5월 항쟁'이 역사적 사실이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공포를 목적으로 삼았으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성취시킬 수 있는 기법이 교차서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작품의 발표 당시 사회 정치적 상황, 무모할 정도로 횡행하는 신군부의 '5월 항쟁'의 음모론과 언론의 등화관제에 의해서 '광주항쟁'의 진상이 왜곡되어 유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일인칭 고백체나 다른 자기 서술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물들의 다양한 초점 변화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항쟁을 직접 체험한 작가의 내적 트라우마 극복과 '5월 항쟁'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기에는 가변초점을 이용한 교차서술은 작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서술기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 '5월 문학'의 개념들을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차후에 진행하겠다.

주제어: 5월 항쟁, 교차서술, 고정 초점화, 오월문학, 내적 초점화

목
차

1. 들어가기
2. 『깃발』의 초점화 양상
3. 『깃발』의 교차서술의 의미
4. 결론

1. 들어가기

5월 항쟁은, 국가가 한 지역을 예외상태¹⁾로 규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제노사이드-데모 사이드라고 불리도 좋지만-에 가까운 폭력적 무력을 사용해 강제 진압하는 불법에 대한 정당한 민주적 시민운동이었다. 자국의 군인을 동원해 자국민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치명적 불법 행위를 직접 겪은 광주·호남의 시민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가공했고, 그것은 정신적 상처가 되어 지금도 집단적 트라우마로 작동되고 있다.

5월 항쟁에 대하여 더욱 분노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을 '없었던 일'이거나 '그렇지 않았던 사건'들로 은폐시키려는 기도가 국가적 기밀사항이 되어, '광주'와 '광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많은

1) 조르주 아감벤, 김항 역, 『예외상태』, 새물결출판사, 2009, 13면. 신군부는 광주에 계엄령을 내리고 계엄군을 파송하여 도시 전체를 봉쇄함으로써, 지역적으로 80년 광주는 한국의 예외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을 오래 동안 질식시킨 점이다. 국가폭력의 끔찍한 폭력을 뒤따라, 국가권력 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 되어서 ‘5월 항쟁’의 진실을 은폐함과 동시에 꾸준히 음모론을 생산해 진실을 왜곡시켜, 광주를 영원히 국가의 ‘예외상태지대’로 만드는 작업을 조장했다.²⁾

이러한 권력의 검열 상황에서, 수많은 광주 사람들은 목격 증인자들로써 마땅한 책무조차 이행 할 수 없고, 강압에 의한 함구와 자폐적 상황의 스트레스로 가성 우울증마저도 극복해내야만 했다. 그래서 초기 광주항쟁의 소설화는 폭로와 고발 등 가성문학 형태를 갖게 되었다. 진실을 말해서 안 되는 의식의 계엄령 아래 초기의 ‘5월 항쟁 소설’은 광주항쟁에 대한 객관적 증언 수집과, 실록으로 색인하려는 의무감의 태도로 조성되었다.³⁾ 예술창작에는 예술가들의 체험이 자리 한다. 모든 체험의 경험적 과정이 예술가들에게 창조성의 동기가 된다. 특히 ‘5월 항쟁’ 같은 미증유 공포 경험에는, 체험의 직간접 여부와 관련 없이 작동되는 예술적 대응의 추동력은 크다. 동시대의 작가들은 무의식적으로, 당대의 ‘어떤 사건-체험-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히스테리적 증상들은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프로이트를 본능적으로 수용한다.⁴⁾

본고는 ‘5월 문학’⁵⁾, 그 중에서 여성작가 홍희담의 「깃발」에 대한

2) 김영삼, 「이중적 예외상태로서의 5·18과 민중·민중문학 담론」, 『현대문학이론연구』, 71집, 2017, 86면.

3) 이성욱,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는 ‘광주’의 꿈 - 광주민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하여」, 『518 민주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06, 341면.

4) 박찬부, 『에로스라 죽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245면.

5) ‘5월 문학’,이란 용어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이거나, 또는 학계에서 명확한 범주를 갖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지 않는 모호한 개념이지만 광주의 ‘5월’에 관한 작품, 거기에 대한 작품들을 범박하게 지칭할 때,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연구이다.⁶⁾ 폭압적 신군부 아래에서, 이 작품은 등장부터 뜨거운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다.⁷⁾ 그것은 예술과 사회학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른, 현재까지도 우리 문학사의 민감한 대립적 비평 담론이다. 『깃발』 역시 '5월 소설'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으나, 위 진영들의 논리에 따라 상호 배제되기도 한다.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다'와 '광주항쟁의 폭력을 민중의식으로 드러낸 좋은 작품'이라는 대립된 논점⁸⁾을 풀기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어지는 것은 포괄적 연구방법론이다. "문학 연구의 의의는 훌륭한 작품이 갖는 특별한 가치나, 연구의 과제는 작품의 숨겨진 의미해석이나, 미학적 효과의 성취 방법을 밝혀내는가에 둔 매우 좁은 데에 머물렀다"⁹⁾는 반성은 참고할 만하다. 한 편의소설은, 그 이념과 미적 형식이 결합하여 형상화되었을 때에야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만약, 소설이 소동

'5월 시', 또는 '5월 소설'이라는 범칭도 있다. '5·18 소설' 또는 '5월항쟁 소설'로도 불리기도 하나, 어느 것이든 정확한 개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다. 이런 범칭개념으로 본고에서도 '5월 소설'로 부르고자 한다. 이 논문 역시 5월 문학의 개념 규정을 위한 준비 작업 입장임에 더욱 양해를 구한다.

정명중, 『5월의 재구성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연구』,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 518기념재단, 2006, 269면.

고은, 『발간사』, 『5월문학총서 1』, 518기념재단, 2013, 4-5면. 강형철 등 편집위원 역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 홍희담, 『깃발』(1988년), 『5월문학총서 2』, 518기념재단, 2013, 123-187면.

7) 최원식, 『광주항쟁의 소설화』, 『창작과 비평』, 1988, 여름호, 292-293면.

이강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도시민적 문학관을 비판한다』,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06, 219-230면.

방민호, 『광주항쟁의 소설화』,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06, 199-202면.

정명중, 앞의 글. 292-297면.

김태현, 『광주민주항쟁과 문학』,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06, 366-367면.

김형중, 『봄날』 이후,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06, 251-255면.

8) 전자는 정과리와 김형중, 후자는 최원식과 이강은이 그렇다. 앞의 글 참조.

9) J. Culler, *Literary Theory*, New York. Oxford U.P, 1997, 44p.

체계 안에 놓이는 하나의 담론이라 규정하면, 그것을 형성하는 구조나 서사적 특성에 접근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제론과 형식론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¹⁰⁾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그 한 방법으로 서술양상을 통하여 「깃발」을 살펴보았다. 서사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르이다. 사건들은 서술행위를 통하여 이야기 되고, 이야기된 담론 층위에서 주제의식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서술자는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는 존재이며, 그의 행위에 따라 소설은 여러 의미 층위를 갖게 된다.¹¹⁾ 그러므로 누가 서술의 주체이며, 누구를 통해 이야기 하는가는 소설연구의 중요한 관점이 된다. 왜 작가들이 그러한 서술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했는가를 묻는 것은 그 텍스트의 의미 구조와 작가의식을 묻는 것이며, 그것은 작품의 평가들에 대한 다른 해석을 열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술 양상은 매우 다기하고 번잡하므로 한 작품에서 그 전체 양상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해서, 본고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 초점화 양상으로 좁혀 살필 것이다. 「깃발」은 복수 서술자로 내부 초점화 되어있으며, 또 가변적 초점 형태로 보인다. 이런 초점화 기법에 따른 교차서술이 그 주요 구성소임을 알 수 있다. 한 텍스트

10) 이황직, 「5월 시의 사회적 형성」,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06, 83면.

“의사소통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문학 작품도 공통의 역사적 지평 아래서만 이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형성에는 사회 구조나 정치경제적 상황이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내적인 구조적 요소들(문학에서 형식적 요소)까지 규제하며, 이러한 형식의 각각의 ‘독특한’ 국면들은 그 요소들과 작가와의 ‘대화’의 결과인 셈이다.”

11) S. 스나이더 랜서, 『시점의 시학』, 김형민 역, 좋은날, 2001, 235면. 랜서는 “우리는 서술 그 자체, 특정의 메시지, 그리고 특정의 청중에 관련된 태도를 인식해야 한다. 비슷하게 서술자의 “가치”는 세계에 대한 일련의 시점-초점-과 소통자로서의 그 혹은 그녀 자신에 관한 특정의 신념 체계, 소통 그 자체, 그리고 담론의 수용자에 대한 신념체계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선택한 서술양상은,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그 내용이나 주제 구현에 대한 최선의 전략이었을 것이므로, 이를 살핀다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¹²⁾

2. 「깃발」의 초점화 양상

혹자는 '5월 항쟁'을 실패한 성공이라고 지칭한다.¹³⁾ 이 반어적 평가 밑에 국가폭력에 자율적으로 무장봉기한 민중들의 정서와 사유들이 놓인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음모론에 결부된 '예외상태' 유지로 광주에 또 하나의 섬이 되어 버린다. 항쟁 기간 당했던 국가폭력의 잔혹함보다 더 끔찍하고 지독한 것은 광주를 향한 타자들의 시선들이었다. 이런 상황 아래 소위 '소설 침체기'는 지속되었고, '5월 소설'은 가뭄에 콩 나듯 하더니, 6월 항쟁 이후에야 비로소 그 동면에서 깨어난다.¹⁴⁾

홍희담과 최윤 등의 소설들은 '5월 소설'을 정초하는 데에 우선 참고삼아야 할 작품들이다. 두 작가들은 사회적 문제에 경도하진 않지만,¹⁵⁾ 그들은 직간접 체험에 대한 작가로서의 '5월 항쟁'에 대한 문학적 대응은 피할 수 없는 내면적 갈등이었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

12) 장성규, 「1980년대 논픽션 양식과 소설 개념의 재편 과정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4권, 2014, 70면. 모든 텍스트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그 텍스트의 미학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고는 이에 동의한다.

13) 김동춘, 「5·18, 6월 항쟁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V.5. 5·18기념재단, 2006, 216면.

14) 최원식, 앞의 글, 287면.

15) 이가야·이주영, 「체노사이드와 예외상태의 인간, 그리고 증언: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고통』과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96, 2013, 131-2면. 최윤의 초기 소설들은 대부분 사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출할 수밖에 없었던 동시대의 작가들이다. 그들의 다른 점은 다만 '5월 항쟁'에 대한 이해지평의 심급뿐이었다. 전자는 외면적 직접서술로, 다른 하나는 내면적 간접화로 드러내는 데, 이는 공권력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여성 특유의 감각에서 비롯한 서술양상의 활용일 것이다.¹⁶⁾

모든 작가들은 자신의 담론인,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전체로 이해되고, 통각적인 감동을 통해 미적 체험을 주기 위해 자신만의 서사 전략을 구축한다. 그런 측면에서, 소설의 예술적 성취 여부는 이야기 층위보다는 서술 층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소설이 근본적으로 “어떤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안된 환상의 구조”라 하는 F. 제임슨의 말이 옳다면¹⁷⁾ 우리는 환상을 창조하고 반응을 조종하는 어떤 기법들의-서술자, 시점 등-의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텍스트의 서술 구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그 텍스트가 지닌 미학적 체계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그 전략 중의 하나가 서술양상이며, 초점화 역시 그렇다.¹⁸⁾ 텍스트 내부에서 서술자 존재 양상은, 시점이나 거리로, 서술자의 태도는 이야기 전달, 즉 의사소통 축에서 기능하는 ‘서술자 제반의 정신적 태도’로 분류되며, 그것은 바로, 독자에게 제시되는 이야기 세계가 인물에게 ‘인지 지각되고,

16) 방민호, 앞의 글, '5월 소설'을 두 가지로 보는 관점에서, “하나의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겨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한다. 239면.

이기야·이주영, 앞의 글. 152면. 작가가 언급한 '돌립노래'란 명칭은 바로 동일한 사건을 각각의 다른 화자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는 초점의 변주이다.

17) F. Jameson, *Maxism and Form: Twentieth-Century Dialectical Theories of Literature*. Princeton Univ. Press. 1971, 355p.

18) Ger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trans. Jane. E. Lewin, New York. Cornell UP. 1980, 189-199p.

Mieke Bal, 환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201-6면
톨랑 부르뇌프/ 레알 윌레 고정/ 김화영 편역, 『현대소설론』, 문학사상사, 1990, 138-143면.

S.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0, 182-4면.

보이어지는 모든 경험'으로 정의될 것이다.¹⁹⁾

특히 본고가 다루는 초점화의 경우, 로트만은, “문학작품은 특별한 의식에 의해 보여진 그 세계의 이미지를 재창조한 것이다”하며, 토도로프 역시 “텍스트의 모든 문장은 발화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려준다.”²⁰⁾고 확인한다. 이때 전자의 특별한 의식은 서술자를 지칭하고, 후자의 발화자 역시 서술자이며, 그가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의 층위나 심급이 변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때, 한 작품에서 작가가 서술자만의 진술에 작품 전체를 맡기지 않고, 특정한 계급-「깃발」의 경우 민중-의 누군가를 초점화자로 삼았다면 분명히 전략적으로, 서술자만의 서술 행위로는 얻지 못하는 다른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고, 그 효과야 말로 자신의 작품 속에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선택한, 그러므로 텍스트의 주제적 층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²¹⁾

초점이란 ‘보는 자’라는 시각적 존재 대신 ‘인식하는 자’라는 소설적 존재를 말한다. 이럴 때, 자연적으로 초점은 발화, 인지, 그리고 사건을 제시하고 재현하는 서술구조의 양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인물 중 누군가를 초점화하는 방식에 따라 사건을 제시하고 재현하는 서술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초점화는 단순히 누구를 통하여 지각하며 이야기하느냐의 문제 뿐 아니라, 훨씬 크게 텍스트의 변화를 초래한다.²²⁾ 또 초점화는 그 가변성과 적용

19) 이종호, 「이무영 〈農民〉의 서사 전략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18권, 2006, 315면.

20) 랜서, 앞의 책, 59-61면. 재인용.

21) 이호, 「시점과 작가의 의도」,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편 새문사, 1996, 291면.

22) 본고는, 독자가 그의 독서과정에서 조우하는 것은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를 제시하는 어떤 시각과 만나는 것이며, 그 시각은 인물처럼, 지각과 심리와 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그의 지각과 심리와 관념을 좇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때의 외연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미시화하면 ‘언어학적인 것’으로 수렴되고, 거시화시킬 경우 ‘관념적 추상’으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텍스트 적용 시 개별적 접근으로, 서술자와 초점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각각 살필 때에야 유용한 기법이 될 수 있다.²³⁾

「깃발」은 외견상 3인칭 화자들로 되어있다. 당시, ‘5월 광주’에 대한 공식적 언급의 엄격한 통제의 시대에 일인칭 화자가 가져오는 내포작가가 화자이며, 화자를 작가와 동일시하는, 즉 소설의 서술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검열 상황에 대비하려는 자기 보호적 대응일 수 있다.²⁴⁾ 또 주요 화자의 내부초점 양상은, 외부세계, 항쟁에 대한 전체적 이해에 미치지 못한 여성 인물이나 하층계급 민중의 이성적 판단 없는 정서적 흥분으로 행동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방법일 것이다. 그것은 여러 차례 여성 화자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을 노정시킴으로써,²⁵⁾ 독자들에게 텍스트 해석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기법이다.²⁶⁾

23) R. 인가르텐, 이동승 역, 『문학예술작품』, 민음사, 1989, 297면.

24) 김영삼, 앞의 글, 68면. “당사자들이 겪었던 주체의 무기력과 우울의 정서가 미학적 형상화의 가능성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25) G.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1988, 31면. 프랭스는 ‘서사물 전체를 소개하는 주화자와 나머지 서술에 끼어드는 2 차, 3 차...로 등급’ 지어진다고 보았다.

26) S 리몬-케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8, 180-182면. 텍스트의 소설화자에 의해 부상된 초점화자는 독자들이 수행하는 실제 독서과정에서, 독자의 시계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포착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독자들은 초점화자를 따라 텍스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3. 「깃발」의 교차서술의 의미

폭압적 학살의 체험 유무는 개인의 세계관을 뒤흔들고 만다. 그 공포를 직접 겪은 사람들은 하나는 광기와 우울만이 적응 기재일 수밖에 없다. 미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파괴시키며, 그것조차 두려운 사람들은, 세상과 직면할 수 없어 우울이라는 자폐의 동굴 속으로 잠행한다. 그래서 부정당한 역사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부정하면서까지 역사를 만든 사람들 앞에서 작가들은, 그 비논리를 설명할 수 없어서, 아무 말-글-도 할(쓸)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²⁷⁾

작가들이 광주를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학적 삶을 건 위태로운 도전이었다. 특히 여성작가들에게 있어서, 당시 정치상황은 5월을 소설화하기 더욱 힘들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5월 소설 중에서, 홍희담의 「깃발」에 나타난 신군부의 야만적 폭력성은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다른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2장에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기법의 전남도청 내부의 시간 경과에 따른 항쟁의 진행 상황과 그 중심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시킨 점은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다른 소설들과는 차별성을 지닌 '5월 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술의 분석을 통하여 서술자의 태도를 고찰한다는 것은 독자에게 전달되는 텍스트의 의미생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은 위에서 살폈다. 모든 작가들은 자신의 텍스트의 구성과 진술에 있어, 최적의 플롯과 최선의 서술자를 택하기 때문이다. 교차 서술 방식 역시 그러한 의도에서 고안된다. 「깃발」은 내적초점으로, 그 활용에 있어서는, 가변 초점화 되어 있다²⁸⁾ 가변초점을 원용할 수

27) 방민호, 앞의 글, 237-8면.

28) S 리몬-케넌, 앞의 책, 114-118면. 내적초점은 인물과 결속된 초점자 character-bound focalizer 라고도 부르며, 고정초점의 경우 그들은 파노라마

없을 때에는 복수 서술자를 끌어들이며, 그들이 갖는 시각들을 차용하기도 한다. 특히 삽입된 노래나 벽보, 소리 등의 이중 ‘목소리’들에 서는 비초점화까지 보인다.²⁹⁾ 어떤 소설에서도 하나로 고정된 두 주체, 오직 한 가지뿐인 시점주체나 서술주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텍스트 내부에서는 이 둘은 소설 전략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⁰⁾ 그러므로 왜 서술자 복수화를 통해 서술자의 존재방식을 조정하고 변형했으며, 또 서술자가 한 인물로 고정초점 되지 않고 여러 인물 사이를 이동하며 초점화 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깃발」의 의미와 작가의 주제의식을 밝히는 방법이라 믿는다.

「깃발」의 표층 서사는 아래와 같이 3 장 구조로 나뉜다. 순분을 초점화자로 삼아 시작하는 1장과 3장, 그리고 복수초점자와 불분명한 서술자들로 구조화 되어 있는 2 장이다. 다수 서술자들의 등장이라는 양상은 대상 작품뿐 아니라, 최윤의 경우나, 최근 한강의 작품과 비견하면, 서술화자의 복수화라는 측면에서 흥미롭고, 의미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내적초점 양상에 각 장마다 고정초점화이며, 다양한 서술자를 초점화자 삼아 등장시킨 것은 3 작품 모두의 공통적 서술방법이다. 이렇게 고안한 의도를 살피는 것

식 또는 동시적 관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29) 삽입 시나 가요, 애국가, 벽보 등이나 누군지 모르는 목소리 등은 전지적 서술자에 의한 비초점화로 보아야 한다.

30) H. 포터 애벗, 우찬제 역, 『서사학 강의』, 2010, 146-7면.

31)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경우, 3 명의 서술자.

플로로그(익명의 서술자)- 1장(남자)-2장(그녀)-3장(우리)-4장(그녀)-5장(남자)-6장(우리)-7장(그녀)-8장(남자)-9장(그녀)-10장(우리)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년.

1장(어린 새)-2장(검은 숲)-3장(일곱 개의 뺨)-4장(쇠와 피)-5장(밤의 눈동자)-6장(밤의 눈동자)-에필로그(작가). 이들 각 장들의 서술화자가 다르고, 그 초점화자 역시 빈번하게 교차되는 현상에서도, 본 텍스트와 많이 닮아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이 포괄적이라고 본다.

이 이들 작품의 '5월'의 의미를 찾는 방법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긴다.

1장 ⇒ 순분 → (김두칠 만남) → (이종 서술 개입) → 영순
→ (이종서술) → 미숙 → 윤강일 → (이종 서술) → 형자

2장 ⇒ 미숙 (복수초점자: 그녀들) → (이종 무기반납삽화=
노동자:학생) → 형자 → (이종 서술) → (이후 25, 26, 27, 28
일) → 순분 → (이종서술 -할아버지 삽화) → 형자 → 용준
→ (이종 서술) → 순분 → (이종서술: 도청상황: 초점화자 상
실)

3장 ⇒ 순분 → (이종 삽화: 항쟁 이후 노동자) → 윤강일 →
그녀들

『깃발』의 초점화양상은 초점자가 소설 내 인물이므로 내적초점이며, 상황에 따라 화자가 달라지므로 가변 초점이다.³²⁾ 이는 다수 인물들로 교차서술을 피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초점을 교차시키면서 서술자의 말과 인물의 말이 맞물리게 하면, 삼인칭 서술의 미적원리가 생겨나는데, 이때 서술자와 작중 인물간의 거리가 다양하게 변하면서 사실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깃발』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현실적 감동을 가능케 하는 세심한 포착들은 가변초점으로 획득해진다.³³⁾

㉠ 비명과 흐느낌이 요란했다. 순분은 온몸이 얼어붙어 있

32) G. Genette, *Narrative Discourse*, trans. Jane. E. Lewin, New York. Cornell UP, 1980, 189-190p. 주네트는 내적 초점화를 다시 '고정적(fixed) 초점화, 가변적(variable) 초점화, 복수(multiple) 초점화' 세 가지로 나누었다. 여기에선 내적 초점화와 그 하위의 가변적초점화로 볼 수 있다.

33) 백지연, 『가능한 미래를 성찰하는 문학』, 『창작과비평』, 2015년, 27면. "도청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광장 건너편 상무관에서 목도한 시체를 앞에서 흐느끼는 사람들과 결의를 다짐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에 대한 세심한 포착은 이 소설이 지닌 현재적 감동을 훼손하지 않는다."

었다. 숨어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녀도 따라 건물에서 나왔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악귀들이야, 악귀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같은 민족끼리 어찌 저럴 수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온 거리는 피의 강, 통곡의 바다였다.

「깃발」, 127-8면³⁴⁾

㉠ 영순네 집은 산수동 밑에 있었다. 그날 18일, 순분이들과 헤어진 영순은 공수대원들을 피해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다. 식구들은 방에 있지 않고 연탄과 허드레 물건을 넣어둔 광 속에 숨어 있었다. 주인 식구들과 같이 있었다. 영순이가 막 숨고 난 직후 담 위로 청년 둘이 뛰어올랐다.

「깃발」, 132면

㉡ 미숙이는 순분의 손을 잡은 채 계속 말하였다.

미숙이는 전날(17일) 늦게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갔었다. 2년 동안 30만원짜리 적금을 부어온 것이 만기가 되어 처음으로 큰돈을 갖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다.

「깃발」, 133면

위는 1 장의 중간 부분의 인용문이다. ㉠ 단락은 순분을 초점자로 삼아 서술하는데, 직접 대화가 인용된 이후 마지막에서 초점화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는 ‘순분들과 헤어진’에서 알 수 있듯이 초점자가 영순으로, ㉢에서는 심지어 미순에 의해 전달되는 여담으로 변형되어 삽입되는 해남의 이야기를 장면화로 전경화하면서, 초점이 미순으로 바뀐다. 이런 것은 가변 초점화의 전형적인 기법이지만, 이 작품처럼 지나칠 정도로 빈번한 것은 작가가 갖는 「깃발」의 창작 의도에서 비롯된 서사적 장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짧게나마 등장

34) 『5월문학총서 4권』. 이하 생략함.

인물 하나하나에 머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적인 시선과 그들에게 넘겨준 서술권의 의미는, 항쟁 기간 도청에 모인 사람들 스스로 밝히는 항쟁 참여의 목적과 이유를 말하게 하고, 그 증언들을 채록하기 위해서다. 증언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외칠 때에야 비로소, 사실과 진실로 확증된다. 이것이 홍희담의 『깃발』 교차서술의 목적이라 본다.³⁵⁾

마지못한 정부 차원의 화해가 공포되었다고 해도, 내부적 억압 상황이 견지되는 한, 내재화된 제노사이드의 공포를 쉽게 씻어내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 내부에서 꿈틀대는 진실의 추구와 그것의 소설화의 갈망은 최대의 문제였다. 국가적 물리적 검열은 물론이거니와 자폐된 상태에서의 자기 검열 역시 하나의 억압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대에 '5월 항쟁'의 소설적 형상화에는 작가의 지향성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이 지점에서 항쟁 현장을 정면으로 다룬 『깃발』은 최윤의 작품과 '5월'에 관한 이해지평을 분명하게 달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깃발』의 2장은, 27일 '충정작전' 직전, 26일 마지막 날의 도청 상황과 도청을 끝까지 지킨 시민군들을 세부 묘사하는 데에 바쳐진다. 미숙을 초점화자로 시작하는 2 장은, 소설 전체에서 초점자가 가장 빈번하게 뒤섞이는 데, 그 양상 또한 개인에서 복수화자로, 이종 서술로, '노동자 : 학생'의 회곡적 대사로만 이뤄진 이종삽화, 다시 (가두방송) 목소리와 노래들(시민들) 등 주초점자만 구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타 화자와의 구별도 어려워진다. 이렇듯, 그 변주 양상이 다양한 것은 도청의 참상을 현장화해서 비극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교차서술 때문이다.³⁶⁾

35) 랜서, 앞의 책, 42면. 인물의 답변이 화자의 말로서 직접 보고-직접제시-도, 자유간접화법처럼 서술된 대화-간접제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㉔모두들 흐느꼈다. 청년은 말을 잊지 못하고 나가버렸다.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내보내면서 형자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나가는 동료들 중에 순분이 마지막 문을 나서면서 흐느꼈다.

“언니.”

“그래, 잘 가.”

순분은 복도를 걸어 나가다가 김두철을 만났다. 그는 엉겁결에 순분의 손을 짝 쥐었다. 순분의 눈물이 김두철의 손등에 떨어졌다.

「깃발」, 165면

㉕창문으로 5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시가지는 깊은 정적에 싸여 있었다.

- 중략 -

소년은 자랑스러운 듯 총대를 슬그머니 만졌다. 그리고 형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누나도 총 있어요?”

“그래, 있어.”

“그럼 됐네요.”

먼 곳에서 연발총 소리가 났다. 우리 편 총성이 아니다.

「깃발」, 166면

㉖ 형자는 문득 이들이 오래 전에 잃었던 형제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솟구쳐 오를 것 같아 눈을 몇 번 깜빡거렸다. 김두철이 그녀의 어깨를 서너 번 토닥거리 주었다. 공수특전단의 만행을 보았을 때 인간에 대한 절망을 맛보았음에도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지극 그녀는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었다.

「깃발」, 167면

㉗ “그래요, 죽음은 그런 걸 거예요. 살아 있는 생명들은 하

36) S 리몬-케넌, 앞의 책, 125-6면. 케넌은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작품에 다양한 '색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형자가 말했다.

연발총 소리와 뒤섞여 대지를 짓밟는 굉음이 들려왔다. 탱크의 캐터필러 소리였다. 소리는 밤의 적막을 하나하나 삼킬 듯이 지축을 천천히 뒤흔들어왔다.

도청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김두철이 MI 소총을 짊어 안으며 소리쳤다.

“개새끼들, 본때를 보여줘야지.”

시민군들은 급히 제 위치로 치달려갔다.

『깃발』, 168면

㉔는 서술자의 시선이 형자에게서 순분으로 옮기며, 다시 순분 입장에서 서술하다, 시민군 김두철과 만나서, 그에게 위임되면서, 순분의 눈물로 비극적 헤어짐을 암시하고 있다. 일종의 다중서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³⁷⁾ ㉕에서는 형자는 초점화자가 되고, 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이지만, 그 양상은 일반적 가변 초점과는 다르다. “우리편 총소리가 아니다”에서 그 내적독백이 소년 것인지, 형자 것인지 불분명하다. 특히 ㉖에서는 외부 초점자처럼 권위적이기도 하다. 이는, 외적 초점자의 이데올로기에 의거하여 텍스트 내의 다른 이데올로기들을 평가함으로써, 서술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도청에 남아 있는 자와 떠나는 자를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촉구한다. 또 마지막 문장의 서술적 독백은 『깃발』의 주제와 관계되는 서술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서술적 독백은 인물의 의식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려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데, 여기에서는 도청의 급박한 상황과 남아 있는

37) 다중서술의 서술자는 서사적 세계 내에 위치한다. 그들은 세계 내 존재로서 자신이 서술하는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는 서사내적 서술자이며, 이런 다중서술은 모든 서술자가 동일한 층위에서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 서술에 동일한 능력으로 참여한다. 홍희담 역시 이런 서술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형자의 상황을 동일한 서술 행위로 삼아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㉔ 역시 초점화자의 이동 현상이 보인다. 형자에게서 두철에게로 서술자의 초점이 변화되고, 마지막은 시민군 김두철의 죽음을 외부초점자의 묘사로 끝맺는다. 진정한 승자에 대한 애도를 위하여 작가의 서술행위 개입까지 허락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듯 내적에서 외적 초점으로 변화되는, 즉 서사 논리를 깨뜨리면서까지 작가가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도청과 도청에서 죽음에 맞선 시민군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시선을 주려는 의도 때문이다. 서사적 논리나 문학적 감동구조에서 오는 미학적 성취를 피하기 보다는, 흥회담이 성취하고 싶었던 것은 ‘5월 광주’의 진실과 특히 시민군의 주류였던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부채감 표명이었다.³⁸⁾ 이런 점이 다른 여성작가들이 견지하고 있던, 소설과는 다른 지평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문학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기법을 일종의 서술적 정체성을 구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해야 한다.³⁹⁾

㉕ “글쎄, 쓸 만한 사람들은 감방에 들어갔거나 잠수함 탕거나 죽었거나 했잖아.”

영순이가 물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원이가 죽었잖아.”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순분이의 물음에 윤강일은 고개를 저었다. 순분이가 계속해서 말했다.

“죽음조차도 윤 선생님 쪽의 사람만 부상하는군요.”

“무슨 뜻이지?”

38) 방민호, 앞의 글, 244면. “작가(흥회담)는 노동자계급의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광주항쟁을 그때까지보다 더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39) 장성규, 앞의 글, 73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에 유리창이 흔들거렸다.

「깃발」, 181면

㉠ 윤강일은 벽에 기대 문을 똑바로 일으켰다. 그리고 혼자 말처럼 너었다.

“그 애가…… 그 애가…….”

그의 손끝에서 하얗게 줄을 이루며 피어오르던 담배연기가 흔들렸다.

그가 씩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깃발」, 183면

「깃발」 3장은 항쟁 후 좌절과 살아남은 부끄러움과 죽은 자들에 대한 미안함의 애도로 인물들의 심리들의 정동성이 극대화 된 시기의 후일담처럼 보인다.⁴⁰⁾ 그러나, 사실 내적초점화는 자아의 각성과 인식의 변환을 보여주는 데에 효과적 기제이며, 3 장에서는 그 성취가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에서는 순분이 강일을 통하여 형자의 마지막 외침 “어떤 사람들이 이 항쟁에 가담했고 투쟁했고 죽었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의 의미를 자각하게 된다. ㉡에서는 윤강일이 형자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강일의 충격의 의미를 짐작케 한다. 윤강일의 사회운동의 효율에 있어 계급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계급적 편견이 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즉 타자를 인식하고 그 반성을 통해 새로운 자각을 조망할 수 있는 데에 유효한 내적 초점 기법을 통해, 두 주인공 순분과 강일은 새로운 인식을 획득한다. 이렇게 흥회담은 서로 다른 관점의 인물들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증언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취하고 있다.

40) 최원석, 앞의 글. 292면.

바로 이 지점에서 '5월 항쟁'에 대한 소설적 이해 지평은 분기된다. 비단 '5월 소설'만이 아니라, 문학이 미학과 사회학 어디에 서야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의 문제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홍희담에게 중요한 것은 '5월 항쟁'의 진실 드러내기가 그 첫째였고, 다음으로는 국가폭력의 비극성 확대를 통한 민중의 각성이었다. 그것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깃발」의 인물들을 초점화자 겸 서술자로 설정한다. 그들은 마치 릴레이 선수가 바통을 넘겨받듯이 초점화자의 역할을 넘겨받아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이 작품에서 초점화자들은 자신이 위치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정신적 동지들과 조우하며 자신들의 처지에서 투쟁하는 것을 독자에게 전경화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도 때문에, 「깃발」은 내적 초점양상의 가변 초점화를 견지하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서술자로 자유롭게 끌어 들여서 교차 서술케 함으로써, 일관성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자기 진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증언자들이 필요했고, 서술자들의 교차적 등장은 필연적 요구사항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초점화의 탄력적 가변성은 작가에게는 효과 높은 서사 전략이었다고 본다.

또 위와 같은 목적을 공고화하기 위해, 「깃발」은 직접서술(간접화법), 인용된 독백 또는 자기 인용 독백(직접화법), 서술된 독백(자유 간접화법) 등을 과감하게 차용하고 있다. 이것 역시 작품의 주제를 명료화 하려는 작가의 의도 때문이다. 즉, 「깃발」의 서술 양상이, 혼성 서술에 가까운 교차 서술인 이유는, 특정 문장 차원이 아닌 보다 상위의 차원에서 서술자와 작중인물 혹은 서술 주체와 경험 주체의 초점을 교차시켜, 작가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이해되게 하려는 이유에서다. 이 시기 대부분의 작품들은 5·18을 형상화하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당시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며, 항

쟁의 전모와 진실이 총체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깃발』은 그 사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성취한 작품일 것이다. 『깃발』 같은 작품의 분석에 있어서는, 시대적 상황과 그것의 소설화라는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깃발』은 '5월' 목격자의 자기 증언으로서 다양한 광주 여러 계층의-노동자 계급에 더욱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등장인물들, 심지어 주변적 인물들의 의식이나, 직접 서술까지도 필요하다면 차용하는 가변 초점화를 이용한 교차 서술이라는 서사 전략을 사용했다. '5월 항쟁'의 진상 규명의 공포(公布)를 위해, 작가는 예술적 형상화라는 작가 고유의 권리마저도 유보하면서까지 비극적 죽음으로 맞선 민중들에 대해 깊은 헌사를 올렸다.

4. 결론

본고는 '5월 항쟁'의 폭력성이 우리를 억압하던 시절, 5월의 등화 관제 상황에서 나타난 초기 '5월 소설'인 홍희담의 『깃발』을 주목하고 살펴보았다. 특히 이 작품과 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에 대한 입장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어떤 작품에 있어서라도, 소설가들은 자신들의 소설이 동시대의 시대정신을 담지하고, 감동을 통한 미적 체험을 주려고 최선을 경주하지만, 미적 체험이란 다양한 관점을 갖기 때문에, 개별 텍스트의 목적성과 의도성에 따라 그 개념을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깃발』의 서술기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고가 초점화 양상으로 『깃발』이 활용한 교차서술의 의미를 논구한 것은 개별 작품의 서사 의도성과 방향성이 소설연구의 기저가 되어야 하며, 그 연후에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

기 때문이었다. 『깃발』은 인물과 결부된 내적 초점화이며, 한 인물로 고정시키지 않고 여러 주·부인물로 이동하는 가변 초점화 기법을 적극 사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등장인물 모두에게 서술권을 넘겨주는 교차서술을 활용하기 위한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을 가까이에서 체험한 작가에게 있어서 '5월 소설'이란, 문학이 추구하는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은폐된 항쟁과 엄폐된 진정한 항쟁 주체인 다양한 민중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작가에게는 역사적 비극이며, 민주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5월 항쟁'의 진실된 증언들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더욱 '전남도청'에서의 희생자들의 계급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순교적 헌신을 통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책무로 삼았기 때문인 것 같다. 결국, 『깃발』의 교차서술의 의미는 '5월'의 수많은 주검들에 대한 진혼의 애도를 위함이며, 또 항쟁에 참가한 민중들의 증언을 공포(公布)하기에 최적의 서술 기법이었던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연구 작품

홍희담, 『깃발』(1988년), 『5월문학총서 2』, 518기념재단, 2012, 11-404면.

2. 단행본

고 은, 『발간사』, 『5월문학총서 1』, 518기념재단, 2012, 04-510면.

박찬부, 『에로스와의 죽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xii-422면.

한 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한국소설학회,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편 새문사, 1996, 291면.

G. 아감벤, 김항 역, 『예외상태』, 새물결출판사, 2009, 13-192면.

G.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 문학과 지성사, 1988, 11-254면.

H. 포터 애벗, 우찬제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0, 05-464면.

M. 발,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05-294면.

R. 인가르덴, 이동승 역, 『문학예술작품』, 민음사, 1989, 05-465면.

R. 부르뇌프 레알 윌레 고정/ 김화영 편역. 『현대소설론』, 문학사상사, 1990, 13-368면.

S. 리몬-케넌,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8, 11-228면.

S. 스나이더 랜서, 『시점의 시학』, 김형민 역, 좋은날, 07-300면.

S.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5-341면.

F. Jameson, *Maxism and Form: Twentieth-Century Dialectical Theories of Literature*. Princeton Univ. Press, 1971, xix-432p.

Ger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trans. Jane. E. Lewin, New York. Cornell UP, 1980, 05-285p.

J. Culler, *Literary Theory*, New York. Oxford U.P, 1997, 01-145p.

3. 논문

김동춘, 『5·18, 6월항쟁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V.5. 5·18기념재단, 2006, 15-654면.

- 김영삼, 「이중적 예외상태로서의 5·18과 민중·민족문학 담론」, 『현대문학이론연구』, 71집, 2017, 65-99면.
- 김태현, 「광주민주항쟁과 문학」,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 1』, 518기념재단, 2006, 11-541면.
- 김형중, 「『봄날』 이후」,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 1』, 518기념재단, 2006, 11-541면.
- 방민호, 「광주항쟁의 소설화」,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 1』, 518기념재단, 2006, 11-541면.
- 백지연, 「가능한 미래」를 성찰하는 문학」, 『창작과비평』, 43권 2호, 2015년, 15-31면.
- 이가야·이주영, 「제노사이드와 예외상태의 인간, 그리고 증언: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고통』과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중심으로」, 『불어블문학연구』 96호, 129-158면.
- 이강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시민적 문학관을 비판한다」,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06, 11-541면.
- 이성욱,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는 ‘광주’의 꿈 - 광주민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하여」,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13, 11-541면.
- 이종호, 「이무영 〈農民〉의 서사 전략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18권, 2006, 307-334면.
- 이호, 「시점과 작가의 의도」,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편 새문사, 1996, 291면.
- 이황직, 「‘5월 시’의 사회적 형성」,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06, 11-541면.
- 장성규, 「1980년대 논픽션 양식과 소설 개념의 재편 과정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4권, 2014, 63-80면.
- 정명중, 「‘5월’의 재구성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연구」, 『518 민중항쟁과 문화·예술1』, 518기념재단, 2006, 11-541면.
- 채희윤, 「조선작 최인호의 유소년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99집, 2016, 387-421면.
- 최원식, 「광주항쟁의 소설화」, 『창작과 비평』, 1988, 여름호, 286-293면.

<Abstract>

A Study on the Early ‘May novel’ of 『Flag』 —Through the Focalization Mode of 『Flag』—

Chae, Hee-Yoon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pattern of focalization of 『Flag』. This work is known as the most controversial work in ‘May Literature’. Even to present day, 『Flag』 has conflicting evaluations on the purpose and functionality of literature. In this situation, I would like to analyze the epic technique of text to examine it more objectively. Because I believe this is an effective method to examine the purpose and orientation of a narrative text.

In my opinion, 『Flag』 was using a very peculiar focalization pattern. First, it focuses on the characters inside the novel (internal focalization). Second, the narrator uses a focalization technique that moves the perspective freely (variable focalization). Such a focalization technique is a narrative strategy that tries to utilize the cross-narrating of characters, in the long run. In this work, Hong, Hee-dam tries to get all of his characters to testify that the ‘May uprising’ is a historical fact. And, she also wanted to declare the grief of the victims of the ‘May Uprising’. The author believ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achieve her goal was cross-narrating.

Until now, we did not have the academic definition of ‘May Literature’. Therefore, we should quickly establish the categorical

concept of ‘May Literature’. For this reason, we need to study ‘May literature’ in a more diverse methodology.

Key words: May Uprising, cross-narrative, fixed focalization, May Literature, mixed description, narrative device

투 고 일: 2018년 6월 7일 심 사 일: 2018년 6월 7일-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18년 6월 26일